



DINO TREASURE

다이노 트레저 스토리 문서

내용

0. 프롤로그

태초에 착한 개발자(선희)와 사악한 개발자(마크)가 있었습니다.

두 개발자의 이름은 선희와 마크였습니다.

태생적으로 천재였기에 고독했던 둘에게 서로는 세상에서 유일한, 동등한 존재이자 이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을 묶어주는 또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공룡’이었습니다.

남다른 취향을 지닌 이들에게 취향을 이해해줄 수 있는 서로는 더욱 각별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은 말했습니다.

“공룡 VR 게임을 만들자!”

그렇게 선희와 마크는 밤낮으로 개발 삼매경에 빠집니다.

열심히 만든 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들뜬 선희는 마크에게 알리는 것도 까먹은 채, 평소 눈여겨보던 게이머에게 게임의 테스트 버전을 보냅니다.

힘들지만 행복했던 시간이 지나고, 게임이 완성 직전 단계까지 다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선희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룡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무서운 세상을 피해 오롯이 단돌이서 지낼 수 있는 이세계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선희와 함께 공룡이 되어 필드를 뛰어다니며, 게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선희는 말도 안된다고 선을 그었고, 유일한 이해자라 생각한 선희에게 거절당한 마크는 커다란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날 이해해주지 않는 거지?”

눈이 돌아간 마크는 선희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선희는 게임의 코어 에너지원 아이템인 '젼'을 챙겨 마크에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마크의 공격에 당하고 말았고, 가지고 있던 젼도 산산조각이 나면서 <다이노 트레저>의 필드 곳곳으로 퍼집니다.

젼은 깨지면서 VR 세계에 커다란 오류를 가져왔습니다.

파편들은 불, 물, 풀, 땅, 바람, 전기, 얼음의 속성을 지닌 파편으로 흩어졌고, 떨어진 곳의 환경을 뒤바꿔놓았고 공룡의 특성마저 바꾸었습니다.

두 개발자의 염원이 만나 탄생한 세상이 뒤틀리고 있는 와중, 선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크의 익룡들은 선희를 찾아 눈에 불을 키고 다이노 트레저 세계의 창공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1. 해변가(튜토리얼)

한편 공룡 월드 바깥, 현실 세계에서는 밥 먹는 것 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는 두 남녀, 준과 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블라인드가 쳐져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방 안에서 게임을 하던 둘에게 의문의 파일이 도착합니다.

파일에는 베타 테스트에 당첨되었다는 초대장과 함께 게임 <다이노 트레저>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게임인데다가, 누가 봐도 수상한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그래픽이 예사롭지 않고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준과 리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VR 장치를 켭니다.

VR 장치를 키고 <다이노 트레저> 세상으로 들어온 준과 리는 뜨거운 모래알과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맞이했습니다.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니, 의문이 들 정도로 현실적인 그래픽과 감각이었습니다.

준과 리는 놀라기는 했지만 NPC도 아이템도 보이지 않는 버려진 더미 데이터 같은 게임에 이내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해변에서 준과 리를 처음으로 맞이한 것은 오래 전에 멸종한 걸로 알려진 공룡이었습니다.

해변가에 거대한 몸통을 길게 뻗은 모사사우르스를 향해 이끌린 준과 리는 공룡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모사사우르스는 준과 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작은 공룡 하나가 모사사우르스를 마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춥니다.

사실 이 작은 공룡은 마크에게 당하고 자취를 감췄던 선희였습니다.

자신을 공룡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크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공룡으로 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희는 어안이 병병한 준과 리에게 이 세계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고는, 얼마 안가 모사사우르스가 다시 움직일 것이라고 말하며 무찔러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준과 리는 게임의 베테랑답게 모사사우르스를 처치합니다.

모사사우르스는 체력이 다하자 몸이 흐릿해져 가며 사라졌고, 사라지면서 켄의 파편을 남깁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선희는 다급하게 그 켄을 자신에게 주라고 소리칩니다.

켄을 쥐고 있던 리가 선희에게 다가가던 찰나, 익룡 한 마리가 날라와 리를 납치해갑니다.

모사사우르스와의 전투로 이미 지쳐있던 준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도 무슨 퀘스트인 것이냐고 선희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리가 납치당하며 떨어뜨린 켄을 줍고는, 준에게 짧은 사과를 한 뒤 이건 실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현실과 같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도와 <다이노 트레저> 세상의 핵심 아이템인 켄을 모와준다면, 리를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방금 리가 떨어뜨린 켄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하자, 허공에 일그러짐이 생기더니 이내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포탈이 생깁니다.

이 포탈을 넘어오면 더 자세한 설명은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포탈을 넘어가자고 말합니다.

단지 게임을 즐기고 싶었던 준은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저 말하는 공룡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지 말까... 그래도 하루에 15시간 같이 게임 하는 것도 다순이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각오를 다진 다식은 광활한 총과 공룡의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2. 로비

직전에 갑작스런 전투와 작별을 겪은 준은 포탈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며 내심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준이 수차례 보았던 **VR** 공간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나오자 준의 긴장이 풀리고, 선희는 다이노 트레저 세상의 배경과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해줍니다.

7가지 스테이지를 돌면서 부숴진 켄의 조각들을 모두 모으는데 성공한다면 선희의 힘이 돌아와서 준과 리를 돌려보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달성하고 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선희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켄의 힘으로 만든 이 **VR** 공간, 로비에서는 지금까지 모은 무기를 시험해보며 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준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무기를 얻을 수 있냐고 묻자 선희는 또다른 켄의 파편, 강화석과 조합석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본래 다이노 트레저의 핵심 시스템이었던 강화석과 조합석은 더 강한 무기를 얻게 해주는 아이템으로 강화석은 무기의 데미지를 높여주거나, 속성을 추가하여 등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합석은 강화하여 등급이 올라간 무기 두 개를 합쳐,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를 만들 수 있었죠.

설명을 듣던 준은 이걸 마치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임의 흐름과 무척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게임이기도 하죠.”

이 선희의 말에 방금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막연하고 절망스럽기만 하던 준에게 자신감이 샘솟습니다.

현실이라면 몰라도, 게임은 자신의 무대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의욕을 되찾은 준은 신명나게 사격 연습을 한 뒤, 대모험의 첫 번째 스테이지인 ‘초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3. 다이노 트레저

선희는 모험을 시작하려는 준을 위해 몇 가지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모사사우르스와 싸웠을 때 사용한 기본 무기에 비하면 하나 같이 강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선희는 기본 무기와 달리 탄환의 제한을 경계하며, 이후 강화석을 통해 추가될 수 있는 속성의 특징들과 그밖에 준이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양한 게임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던 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떠오르고 있었고, 순식간에 다이노 트레저의 시스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준의 앞길을 막아선 장난 시조새는 너무나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초원지대의 보스이자, 준이 맞닥뜨린 두 번째 보스 몬스터인 장난 시조새의 힘은 같은 보스 몬스터임에도 모사사우루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모든 공격이 장난스럽고,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지만 정말이지 무섭도록 강했습니다.

말그대로 목숨을 걸고 사투에 임한 준이었지만,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체력이 고갈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선희가 쓰러진 준을 데리고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잠시 후, 눈을 뜬 준에게 익숙한 천장이 보였습니다.

로비 공간으로 돌아온 준에게 선희는 짧게 안부를 묻고는, 더 강한 적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잔인하다는 생각과 함께, 애써 모았던 무기를 잃어버린 허탈함이 준을 관통합니다.

하지만 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의 전투 경험을 통해 습득한 가히 ‘특성’이라고 해도 좋은 전투 요령들이 몸에 배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의 허리춤에는 리가 익룡에게 끌려가면서 떨어뜨렸던 기본 무기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기본 무기를 바라보며 리와의 추억을 떠올리던 준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렇게 주운 것이나 다름 없는 목숨을 유감없이 불태우고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며, 다식은 점차 역전의 용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변지대의 모사사우르스, 초원지대의 장난 시조새는 물론 이어지는 정글지대의 포이즌 딜로포, 사막지대의 강철 프테라, 빙하지대의 아이스 스테고, 연구지대의 번개 랩터를 무찌르며 길을 열어나갑니다.

5. 화산 지대

마침내 다이노 트레저 최후의 스테이지 화산 지대에 도달한 준,

각 스테이지의 쟁을 모으면서 겪은 숏한 경험과 압도적인 성능의 무기를 지닌 준에게서는 초반의 미숙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위엄마저 흐르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화산 지대를 안방처럼 활보하는 파키케팔로사우르스의 화염조차도 준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험의 종착점이 보일락 말락 하자, 그새를 못 참고 준의 머릿속은 핑크빛이 되어 리와 이세계 피크닉을 떠나는 망상이 떠오릅니다.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찰나, 시커멓고 거대한 그림자가 준의 머리 위로 드리웁니다.

준이 고개를 들자, 육식공룡의 패왕 티라노사우르스가 거대한 이빨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하늘을 향해 거대한 포효를 내지르는 티라노.

화산 지대 너머 로비까지 들릴 듯한 굉음은 어엿한 베타랑 전사가 된 준의 전투 태세마저 주춤하게 만들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수많은 강적을 상대한 준은 침착하게 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능숙하게 티라노의 브레스와 물리 공격을 회피하며 약점을 파악하던 준은 어떤 총알이던 튕겨내던 티라노조차도 눈 만큼은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차분하게 티라노의 눈을 정조준하고 총알 세례를 쏟아붓는 준.

티라노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그 육중한 몸을 휘청입니다.

준이 승리를 직감하던 그 찰나,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기까지다, 애송이.”

한눈에 보아도 악의에 가득찬 얼굴과, 언뜻 익살스러워 보이지만 내면에는 뒤틀린 심연이 엿보이는 섬뜩한 목소리.

선희 외에 다이노 트레저 세계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지성체란 사실을 제외하고도 준은 그 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크는 리를 찾는 준의 진심어린 외침도 조롱으로 넘겼습니다.

준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마크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마크는 진지하게 전투에 임하는 준을 비웃으며 상처 입은 티라노에게 다가갑니다.

마크의 손길이 닿자 티라노의 몸에서 빛이 나며, 다른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마크의 기술의 정수가 담긴 메카 티라노였습니다.

메카 티라노는 티라노를 포함한 여태까지 싸운 모든 보스 보다는 월등히 강한 존재였습니다.

준은 한눈에 그 사실을 알아보았죠.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준과 리는 구하겠다는 일념과, 로망 속의 존재인 메카 티라노와 싸울 수 있다는 고양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야아아아아암!”

마침내 준은 최후의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6. Cookie

준과 마크의 사투 끝에 폐허가 된 화산 지대.

아직도 가라앉을 김새가 없어보이는 먼지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먼지가 조금 걸치자 그곳에는 선희의 모습이 보입니다.

폐허 속을 두리번거리던 선희는 땅에서 무언가를 주워 올립니다.

선희의 손아귀에는 화산 지대의 잼, 파이어잼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잼을 손에 넣은 선희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눈동자에 지금껏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붉은 안광을 띄우며...

- End. -